

문해교육, 문해교사를 만나다

□ 개최 개요

○ (주제) [2024년 북토크] 문해교육, 문해교사를 만나다

문해교사를 위한 ‘문해교육개론서(3종)*’ 저자와 함께하는 문해교육 특강과 대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문해교육과 평생교육(이희수 저, 국평원 기획)’, ‘성인문해와 성인문해능력조사(허준 저, 국평원기획)’, ‘성인문해학습자(이지혜 저, 국평원기획)’ (자세한 책소개는 붙임 참조)

○ (일시) 2024. 4. 3.(수) 10:30 ~ 16:00

○ (장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디지털 미디어센터 4층 TV 1 스튜디오

○ (추진체제) (주최) 교육부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문해교육센터)

○ (참석대상) 문해교육 관계자, 교사 및 학습자 등 150여명

○ (주요 내용)

- **【Session I】** 저자가 강연하는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특강
- **【Session II】** 저자와 문해교사가 함께하는 대담회

○ (참가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4. 3. 29(금)까지
- (신청방법) 국가문해교육센터(le.or.kr)(e-학습터 설문참여)를 통해 참가신청

○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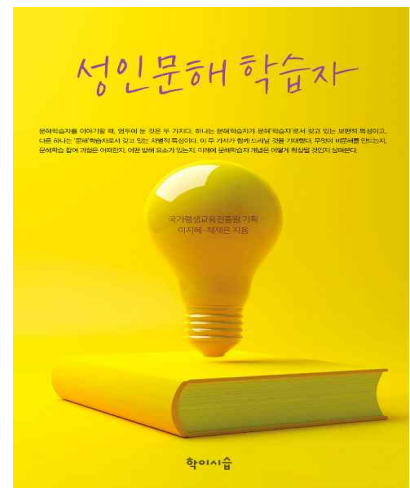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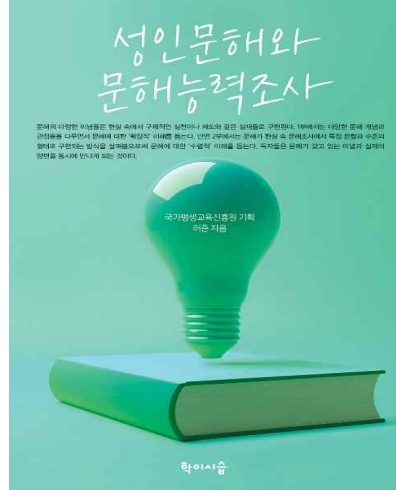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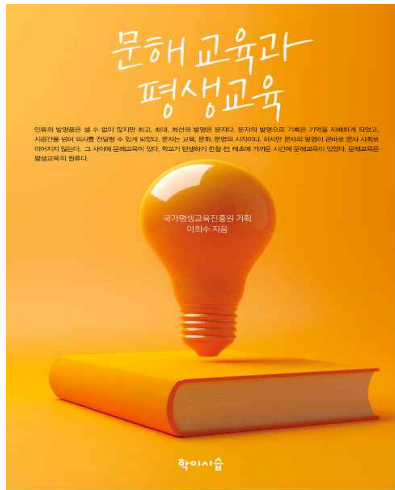
- 본 행사는 온라인 영상 녹화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사전접수 선착순 150명에게는 중식을 제공합니다.
- 연수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문해교육개론서(저자 친필 사인본)와 기념품을 드립니다.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10:30 (‘30)	등록 및 접수
10:30~11:00 (‘30)	개 회 식
11:00~11:50 (‘50)	【특별 강연 1부】 평생교육의 원류로서 문해교육 이 희 수(중앙대학교 교수)
11:50~12:00	휴 식
12:00~12:50 (‘50)	【특별 강연 2부】 평생교육의 물줄기로서 문해교육 이 희 수(중앙대학교 교수)
13:00~13:50 (‘50)	점 심 식 사
14:00~15:50 (‘110)	【대 답 회】 저자와 함께하는 문해교육의 이해 사회: 김 성 일(문해교사, Youtube 성인문해교실 모범생 MC) 이희수(중앙대학교 교수), 이지혜(한림대학교 교수), 허준(영남대학교 교수)
15:50~16:00 (‘10)	기념품 증정 추첨 및 행사 폐회

□ 장소 안내





〈특별강연, 대담회〉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
·現 문해교육심의
위원회 위원장



〈대담회〉
허준
·영남대학교 교수
·제7기
문해교육심의위원



〈대담회〉
이지혜
·한림대학교 교수
·제7기 문해교육심
의위원
·前 문해교육심의
위원회 위원장

책소개

문자의 발명과 동시에 문자를 읽지 못하는 자, 즉, 비문해자가 생겼고 문자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탄생했다. 학교라는 제도가 탄생하기 전부터 문해교육이 있었다. 저자는 문해교육의 시작과 궁극적 이상을 넘나들며, 문해력과 문해 교육의 의미, 그리고 평생교육과 문해 교육의 관계를 탐구한다.

금융, 건강, 디지털, 매체, 미래, 생태문해 등에 앞서 문해의 근본을 들여다보며 문맹에서 비문해로, 단일문자 문해에서 다중문해로, 협의에서 광의로, 정태에서 역동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문해 교육 역사와 국경을 넘어 공유되는 의제들을 조명한다.

책소개

문해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선입견에 대해 저자는 문해의 다양한 의미, 새로운 문해교육의 지평, 문해교육의 핵심 이론을 통해 답한다.

문해력의 실재와 이념 사이의 관계를 측정, 평가, 조사를 통해 명확히 설명하며, 문해력 향상의 기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다양한 문해 교육 데이터 확보에 있음을, 그리고 문해 조사가 그 기반이 됨을 강조한다. 문해력과 문해 조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는 이유와 새로운 기술 및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도전을 논한다.

책소개

성인문해학습자는 누구인가? 문해학습자는 사회 역사적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관련 법과 정책, 성인문해능력조사에서 그 출발점을 찾는다. 문해학습자가 학습현장에 오기까지 어떤 생애경험을 하는지, 성별, 연령, 소득,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왜 비문해자가 되었는지, 비문해자로서 문자세계에서 살아가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화로 인한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가 미래의 문해교육 현장에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문해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